



암페놀 (APH.US)

실적 성장이 가격 부담을 압도하는 구간

- IT & Datacom 중심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M&A 중에도 증명된 수익성 관리 능력
- 구리-광학 하이브리드 대응력 강화 및 CCS 시너지를 통한 차세대 AI 인프라 선점
- 기록적 수주잔고 기반 2Q 가이드 상향과 이익 성장 대비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매력

Q1FY26 실적: AI 수요가 견인한 역대급 분기 실적

암페놀(APH)의 26Q1 분기 매출액은 76 억 2,010 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으며, M&A 효과를 제외한 유기적 성장률 역시 33%를 기록했다. 또한, Non-GAAP 조정 희석 EPS 는 1.06 달러(+68% YoY)로 매출액과 EPS 측면에서 모두 앞서 발표한 가이드런스 상단(70 억 달러/0.93 달러)과 시장 기대치(71 억 달러/0.95 달러)를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

부문별로는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IT & Datacom의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 80%를 상회하며 전사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분기 중 사상 최대 규모인 CommScope(CCS) 인수 통합 비용(인수가액 약 106 억 달러)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OPM) 27.3%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5Q3 및 25Q4 대비 단 20bps 낮은 수준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음을 의미한다.

밸류에이션: 가파른 성장이 정당화하는 추가 업사이드

APH 주가는 지난 12 개월간 80% 이상 급등했으나, 강력한 펀더멘탈에 기반한 이익 전망치 상향이 동반되며 12M Fwd PER 은 28.9 배로 오히려 5 년 평균(29.6 배)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또한 26Q2 EPS 가이드런스(1.14~1.16 달러)가 컨센서스(1.06 달러)를 대폭 상회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Upward Revision) 및 주가 상승 잠재력을 시사한다.

우리는 APH 의 FY26 연간 EPS 예상 성장률이 컨센서스 기준 43%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과거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현재를 매력적인 진입 시점으로 판단한다. 금번 실적 시즌 중 재확인된 빅테크의 CapEx 확대 의지에 따라 AI 데이터센터 내 구리 및 광학 솔루션의 동반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역대 최고치인 1.24 배의 수주 잔고 비율(Book-to-bill)을 고려할 때 현 주가 대비 약 10~20% 이상의 업사이드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6.05.01): \$148.38
 목표주가 컨센서스: \$178.53

▶ 투자 의견 컨센서스

매수	보유
79%	21%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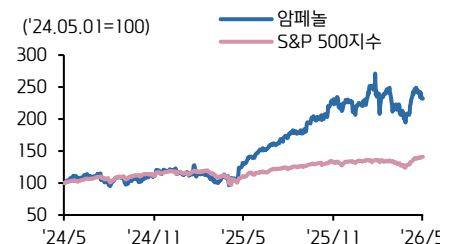
산업분류	전자 장비 기기 & 부품
S&P 500 (05/01)	7230.12
현재주가/목표주가	142.3
52주 최고/최저 (\$)	167.04 / 74.31
시가총액 (백만\$)	182,423
유통주식 수 (백만)	1,229
일평균거래량 (3M)	9,327,974

Earnings & Valuation

(백만 \$)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15,223	23,095	33,141	37,402
영업이익	3,303	6,050	9,107	10,494
OPM(%)	21.7	26.2	27.5	28.1
순이익	2,382	4,273	6,169	7,240
EPS	1.89	3.34	4.78	5.56
증가율(%)	25.6	76.7	43.0	16.5
PER(배)	34.9	38.7	29.8	25.6
PBR(배)	8.6	12.4	10.2	7.8
ROE(%)	26.7	36.8	39.9	36.9
배당수익률(%)	0.6	0.6	-	-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9.8	17.4	6.5	92.8
S&P Index	4.2	9.3	4.3	28.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5-01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글로벌 인터커넥트 리더

APH 은 글로벌 2 위 인터커넥트 솔루션 기업으로, 전기·전자 커넥터와 함께 광섬유, 센서, 안테나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기술 스택을 갖추었다. 130 여개의 독립적인 사업부(BU)로 구성된 분권화된 조직 구조를 통해 고객사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IT & Datacom, 자동차, 산업재, 군수, 항공 등 8 개 주요 전방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적극적인 M&A 를 통해 시장 점유율과 기술 스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CommScope 의 CCS(Connectivity and Cable Solutions) 사업부를 약 106 억 달러에 인수했다. 개별 사업부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실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애펬놀 \(APH.US\): CPO 시대를 선도하는 인터커넥트 수혜주\)](#)

AI Interconnect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APH 의 대응 현황

최근 AI 데이터센터 구축 가속화로 인해 서버 및 GPU 간 데이터 전송 효율을 결정짓는 Interconnect가 전체 시스템 성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송 속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기존 구리(Copper) 기반 연결 방식의 물리적 한계와 전력 소모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광학(Optical) 솔루션으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기존 구리 기반 강자인 APH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영진은 APH가 구리뿐만 아니라 전력(Power) 및 광섬유(Fiber Optics) Interconnect 제품군 전반에 걸쳐 가장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인수한 CommScope(CCS)의 역량이 더해지며 수동형(Passive)뿐만 아니라 능동형(Active) 광학 및 구리 솔루션까지 대응력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AI 생태계 전반의 고객사들과 협력하며 구리와 광학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차세대 아키텍처를 설계 중이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26Q2 가이드언스: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치 제시

경영진은 26Q2 가이드언스를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매출액 81억~82억 달러(YoY +43~45%), 조정 EPS 1.14~1.16달러(YoY +41~43%)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CCS 인수에 따른 외형 확대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및 전통적 IT & Datacom 시장의 견조한 수요가 2분기에도 가파르게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되면서 가이드언스에 내재된 영업이익률 역시 27.4%로 시장 예상치(18.2%)를 크게 웃돌고 있다. 1분기에 기록한 사상 최대 수주잔고(94.4억 달러)가 2분기 실적의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만큼, 가이드언스 상단을 향한 실적 가시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애펬놀 FY26 1Q ('26.01.01~03.31)

구분	FY26 1Q	컨센서스 비교		YoY 비교		QoQ 비교	
	(백만 USD)	발표치	컨센서스	차이	FY25 1Q	성장률	FY25 4Q
매출액	7,620	7,117	7.1%	4,811	58.4%	6,439	18.3%
영업이익	2,081	1,829	13.7%	1,130	84.2%	1,770	17.5%
영업이익률	27.3%	25.7%	1.6%p	23.5%	3.8%p	27.5%	-0.2%p
순이익	1,373	1,219	12.6%	800	71.6%	1,254	9.5%
EPS (USD)	1.06	0.95	11.8%	0.63	68.3%	0.97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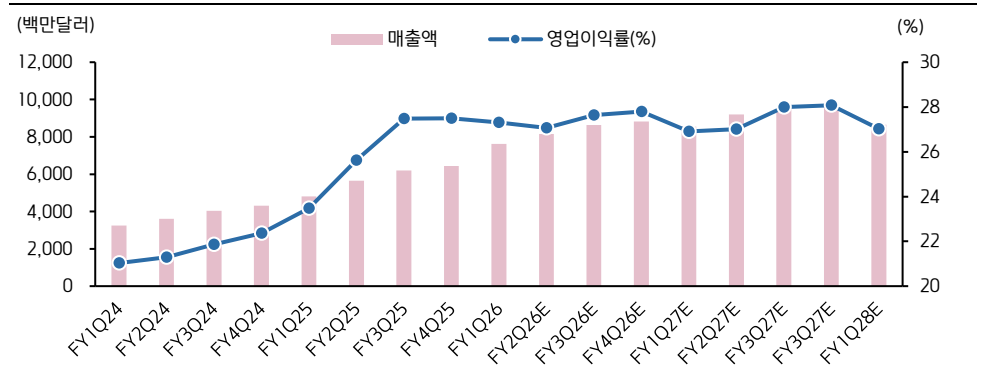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5-01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애펬놀 향후 실적 컨센서스 표

구분	분기 컨센서스				연간 컨센서스			
	(백만 USD)	FY26 2Q	YoY 성장률	FY26 3Q	YoY 성장률	FY26	YoY 성장률	FY27
매출액	8,163	44.5%	8,629	39.3%	33,141	43.5%	37,402	12.9%
영업이익	2,210	52.6%	2,386	40.1%	9,107	50.5%	10,494	15.2%
영업이익률	27.1	1.4	27.6	0.2	27.5	1.3	28.1	0.6
순이익	1,479	43.6%	1,609	35.4%	6,169	44.4%	7,240	17.4%
EPS (USD)	1.16	42.6%	1.25	34.3%	4.78	43.0%	5.56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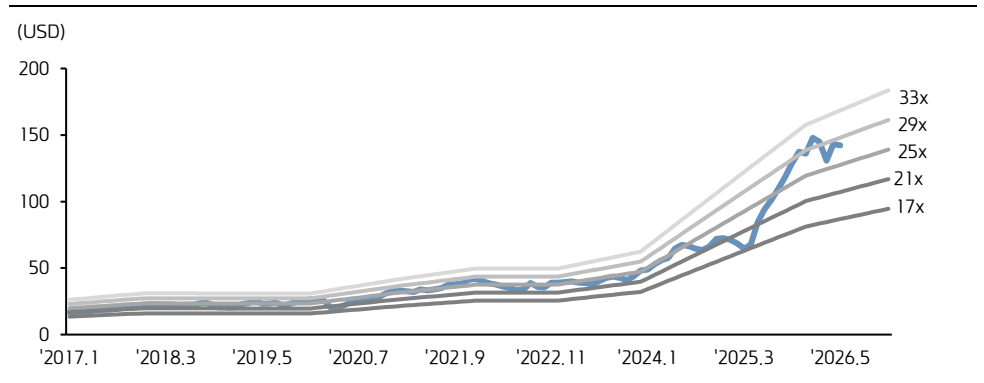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5-01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애펬놀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5-01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애펬놀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5-01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애펬놀 상세실적표

(백만 USD)	FY25 1Q	FY25 4Q	FY26 1Q	YoY(%)	QoQ(%)
[GAAP]					
순매출액	4,811	6,439	7,620	58.4	18.3
매출원가	3,167	3,978	4,820	52.2	21.2
매출총이익	1,644	2,461	2,800	70.3	13.8
영업비용	619	738	968	56.4	31.1
인수관련비용	44	-	117		
판매·관리비	575	691	852		
영업이익	1,025	1,723	1,832	78.7	6.3
순이자비용	-77	-130	-208		
기타순이익	15	56	22		
세전이익	963	1,649	1,646		
법인세비용	-219	-444	-702		
순이익	744	1,205	944	26.9	-21.7
비지배귀속 순이익	-6	-10	-10		
지배귀속 순이익	738	1,196	933	26.5	-21.9
희석 EPS(달러/주)	0.58	0.93	0.76	31.0	-18.3
희석 가중평균주수(백만주)	1,266	1,289	1,290	1.9	0.1
주요 영업데이터 [Non-GAAP]					
조정영업이익	1,130	1,770	2,081	84.2	18
조정순이익	800	1,254	1,373	71.6	9
조정 EPS(달러/주)	0.63	0.97	1.06	68.3	9.3
잉여현금흐름(FCF)	580	1,476	831	43.2	-43.7
[부문별 실적]					
매출					
Communications Solutions	2,414	3,423	4,535	87.9	32.5
Harsh Environment Solutions	1,268	1,563	1,693	33.5	8.4
Interconnect&Sensor Systems	1,129	1,364	1,392	23.3	2.1
영업이익					
Communications Solutions	661	1,114	1,389	110.3	24.7
Harsh Environment Solutions	311	456	473	52.1	3.9
Interconnect&Sensor Systems	205	274	282	37.8	2.8

자료: 애펬놀,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